社 說

대학선거의 투명성을 회복하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95학년도 수원캠퍼스 학생회 선거를 보면 이것이 과연 지성인의 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거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부분의 선거가 경선으로 이루어진 결과 예년과는 달리 좀더 활발한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캠퍼스의 경우 고질적인 관심부족으로 선거참여율이 과반수를 가까스로 상회했다는 점과 수원캠퍼스의 경우 선거과정상에 표출되어진 학교 직원과 교수, 기존 학생회간의 불협화음과 후보자들간의 마찰은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이었나 다시금 자문케 한다.

후보 간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백색세력'과 '적색세력'이라는 어휘들을 시작으로 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교당국의 개입 여부등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성한 소문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무하고 있다.

학생회 선거는 중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중선관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후보를 불리하게 할 수도 있는 전단들이 통제없이 유포되어지고 있다. 또한 불법선거 개입사례로서 접수된 사안들에 대해 선거 이후로 진위결정을 유보한 중선관위의 태도는 불법선거 개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산업대 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학교측과의 유착 의혹으로인해 한 후보자가 자격을 박탈당한 가운데 단독후보로 실시된 선거 결과, 반대표가 많이 나와 선거 자체가 무효화 됐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사회의 선거과정에서 무참히 꺾이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왔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우리의 선거가 기존의 선거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단대학생회장 선거상의 오류를 극복한 상황에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꽃이되어져야 할 것이며 기존 선거판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져야 한다.

선거 과정상의 사건들에 의해서 유권자의 표가 좌우되는 것이아닌 올바른 선거공약과 공개적인 정책대결의 자리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결정되는 참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기대는 결코 우리의 학상공론식 기대가 되어선 안된다.

원내 복귀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12.12 군사반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회기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제 1백70회 정기국회는 각종 법안과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를 의사당에 쌓아 놓은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불사론에 민자당의 단독국회 강행 방침으로 정국은 이제 회생할 조짐마저 잃어버린채 영수회담에만 한 가닥 희망을 쏟고 대통령이 돌아와 해결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대통령이 돌아오면 공방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만 물음에 우리 모두는 씁쓸한 웃음을 흘릴 수 밖에 어떤 구체적인 확신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인 듯 싶다.

다름아닌 12.12 군사반란이 단순히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사건이었다고 하기에는 사건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즉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를 잉태한 출발점이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현 정권의 성격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당뿐 아니라 보수적인 야당에게까지 물리쳐 수 없는 한 편 승부점인 것이 그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12.12와 관련하여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여야의 대결회에 여론을 혼탁하게 하는 목소리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바로 언론의 보도태도나 편집행태들인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각계각층에서는 국가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성토하며 보수세력과 수구세력의 대반격으로 주춤해진 김영삼정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고 할 때 타진 북한의 조소위 탈출 사건을 거의 모든 일간지에서는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위기에 몰린 정부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언론은 12.12사건과 관련하여 여당을 대신하여 야당과의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모두에게 국회공전의 책임을 묻는 양비론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예·결산 심의, 추곡수매가, 국제무역기구가입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강하게 주장하며 여당의 단독국회 불사 방침을 힘겨루기로 치부하는 듯한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언론의 보도양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12.12 문제는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기 힘든 사안으로 분석되고 그에 따라 단독국회 강행도 이번 사안에 쏠린 국민 대중의 관심을 감안해 볼 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시점에서 언론은 민중에게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고 모두 국회로 돌아가자고 강요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만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비판하면 그만이지 어떤 대안까지 내놓 책임은 없는 것이다. 12.12 군사반란이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쿠데타임이 밝혀졌다면 결집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다시 내려야 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 늦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언론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제 더 이상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쉐회의에 참석했던 김영삼대통령의 보따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촉각을 세우고 살펴보아야 한다. 영수회담이 진행되고 보고르의 성과가 부각될때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역사적 사건 하나를 지연스럽게 무마시키는지 두 눈 부릅 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 이성의 시계바늘은 몇시인가

—비이성 사회가 겪어야 할 고통과 댓가

도 정 일
〈문리대교수 영문학〉

'톨스토이의 바보'란 것이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들에는 사실 여러 명의 바보들이 등장하지만,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이 바보는 부단히 '인과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 골몰했던 바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인과의 문제를 따질 줄 안다면 적어도 '보통' 바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바보가 관심을 갖는 것도 예컨대 "기차는 왜 움직이는가" 같은 만만찮은 문제이다. 기차는 왜 움직이는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이 바보가 발견한 것은 차장이 호르라기를 훽 불어야 차가 움직인다는 사실이었다. 마침내 그는 "기차를 움직이는 것은 차장의 호르라기 소리이다"라는 위대한 발견에 도달한다.

'세익스피어의 바보'라는 것도 있다. 그 역시 보통 바보가 아니다. 세상 일들은 왜 일어나며 왜 특정의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라는 철학적 주제가 그의 사색대상이기 때문이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낮이 지나면 저녁이 온다. 왜 그런가?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서 그 바보가 던지는 심각한 질문은 이런 것이다. "한 시간 전까지 6시였는데 지금은 어째서 7시인가?"

1994년의 여름과 가을은 우리에게 별난 계절이었다. 그 무더웠던 여름 내내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만세'와 '자본주의 만만세' 소리에 뒤덮혔다가 가을이 되면서 그 만세 합성에 찬물을 끼얹는 '놀라운 소리들'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소리? 그것은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다리 무너지는 소리, '지존파'의 톱질 소리, 유한성 불다는 소리였다. 그 소리들은 왜 발생했는가? 이것은 적어도 바보의 질문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사회가 내놓은 원인분석과 설명과 대응방식은 톨스토이의 바보를 무색케 하는 데가 있다.

불교계 일각의 설명에 의하면, 다리가 무너지고 지존파 같은 것이 뜨게 된 이유는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청와대 뒷뜰의 불상을 치우고 경희루 연못의 연꽃을 걷어냈기 때문이다. 기독교계 일부의 원인분석에 따르면 정권 담당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불수꾼들은 청와대의 명기운이 쇠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유식중은 다리 위로 차가 너무 그래서 미국 록키 산맥에서는 개미집 수천개가 무너지고 한국에서는 다리가 무너졌다고.

이런 설명방식이 심심찮게 떠돌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지금 '아직도' 우리 사회이다. 사는 왜 하지 않았을까? 유식층의 문제진단과 대응방식도 더 나을 것이 없다. '효(孝)'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진단이 있는가하면 한자교육을 시키지 않은게 문제라는 분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자를 가르치자는 대응방식도 있다. 그러나 그 처방은 그 때문에 한자 수준과 정도에 따라 인간은 바보가 되기도 하고 바보를 면하기도 한다. 수준이 지나치면 '이성의 오만' 때문에 인간은 바보가 되고 수준미달이면 '비이성' 또는 '몰이성' 때문에 바보가 된다. 이성의 오만은 바보의 첫째 능력인 잘못된 정보의 선택능력을 줄이지 못하고 비이성, 몰이성은 잘못된 원인분석(이것은 바보의 두번째 능력이다)에 빠져들게 한다. 지금 이 땅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지존파가 뜨는 것은 효가 모자라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아서, 또는 왕조시대의 텍스트이자 그 인식틀을 담은 (명심보감)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톨스토이의 바보를 데려다 놓아도 넉근히 알 일이다. 지난 여름의 만세 합성과 가을의 찬물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없는지는 세익스피어의 바보라도 알만한 일이다.

◇잇따른 부실공사 사고속에 또 다른 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김포매립지.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비이성 사회는 무엇보다도 그 비이성성 때문에 막대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비이성의 유통과 확산을 묵인하는 사회는 바로 그 묵인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마치 그 대가를 계속해서 치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라도 한듯 비이성의 잔치에 몰입하고 있다.

대학에서, 대학에서조차도, 비이성의 확산이 점점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폭임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세익스피어의 바보는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은 몇시인가? 어제 저녁에도 해가 졌는데 어째서 오늘 다시 해가 지는 것일까?

명민한 바보들의 비논리 경쟁 심화

문제진단과 대응, 이성적 인식 바탕돼야

'톨스토이의 바보'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들에는 사실 여러 명의 바보들이 등장하지만,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이 바보는 부단히 '인과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 골몰했던 바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인과의 문제를 따질 줄 안다면 적어도 '보통' 바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바보가 관심을 갖는 것도 예컨대 "기차는 왜 움직이는가" 같은 만만찮은 문제이다. 기차는 왜 움직이는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이 바보가 발견한 것은 차장이 호르라기를 훽 불어야 차가 움직인다는 사실이었다. 마침내 그는 "기차를 움직이는 것은 차장의 호르라기 소리이다"라는 위대한 발견에 도달한다.

'세익스피어의 바보'라는 것도 있다. 그 역시 보통 바보가 아니다. 세상 일들은 왜 일어나며 왜 특정의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라는 철학적 주제가 그의 사색대상이기 때문이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낮이 지나면 저녁이 온다. 왜 그런가?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서 그 바보가 던지는 심각한 질문은 이런 것이다. "한 시간 전까지 6시였는데 지금은 어째서 7시인가?"

1994년의 여름과 가을은 우리에게 별난 계절이었다. 그 무더웠던 여름 내내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만세'와 '자본주의 만만세' 소리에 뒤덮혔다가 가을이 되면서 그 만세 합성에 찬물을 끼얹는 '놀라운 소리들'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소리? 그것은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다리 무너지는 소리, '지존파'의 톱질 소리, 유한성 불다는 소리였다. 그 소리들은 왜 발생했는가? 이것은 적어도 바보의 질문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사회가 내놓은 원인분석과 설명과 대응방식은 톨스토이의 바보를 무색케 하는 데가 있다.

불교계 일각의 설명에 의하면, 다리가 무너지고 지존파 같은 것이 뜨게 된 이유는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청와대 뒷뜰의 불상을 치우고 경희루 연못의 연꽃을 걷어냈기 때문이다. 기독교계 일부의 원인분석에 따르면 정권 담당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불수꾼들은 청와대의 명기운이 쇠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유식중은 다리 위로 차가 너무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이라 말한다. 여기다 좀더 시적인 설명, 신비론자들을 즐겁게 할 설명을 보탤 수도 있다. 이를테면 다리가 무너지던 날 대양계에서 토성과 목성의 궤도가 잠시 어긋나 우주의 모든 토목법칙이 한 순간 영향을 받게 되고 회일각에 국한된 얘기라고 더러 발할지 모른다. 그러나 청와대 당국이 "우리는 불상 안 치웠다"며 사진을 찍어 신문에 공개해야 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그게 '일각'의 문제가 아님은 알만하다. 정권 담당자의 신심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발표는 왜 하지 않았을까? 유식층의 문제진단과 대응방식도 더 나을 것이 없다. '효(孝)'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진단이 있는가하면 한자교육을 시키지 않은게 문제라는 분석도 있고, 아니라는게 더욱 분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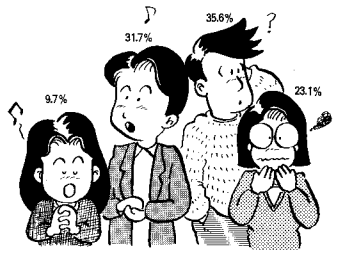
인간의 이성은 결코 대단한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발휘 수준과 정도에 따라 인간은 바보가 되기도 하고 바보를 면하기도 한다. 수준이 지나치면 '이성의 오만' 때문에 인간은 바보가 되고 수준미달이면 '비이성' 또는 '몰이성' 때문에 바보가 된다. 이성의 오만은 바보의 첫째 능력인 잘못된 정보의 선택능력을 줄이지 못하고 비이성, 몰이성은 잘못된 원인분석(이것은 바보의 두번째 능력이다)에 빠져들게 한다. 지금 이 땅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지존파가 뜨는 것은 효가 모자라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아서, 또는 왕조시대의 텍스트이자 그 인식틀을 담은 (명심보감)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톨스토이의 바보를 데려다 놓아도 넉근히 알 일이다. 지난 여름의 만세 합성과 가을의 찬물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없는지는 세익스피어의 바보라도 알만한 일이다.

비이성 사회는 무엇보다도 그 비이성성 때문에 막대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비이성의 유통과 확산을 묵인하는 사회는 바로 그 묵인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마치 그 대가를 계속해서 치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라도 한듯 비이성의 잔치에 몰입하고 있다.

대학에서, 대학에서조차도, 비이성의 확산이 점점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폭임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세익스피어의 바보는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은 몇시인가? 어제 저녁에도 해가 졌는데 어째서 오늘 다시 해가 지는 것일까?

당신은 교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림뉴스



완전히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몇번 들어는 봤다 전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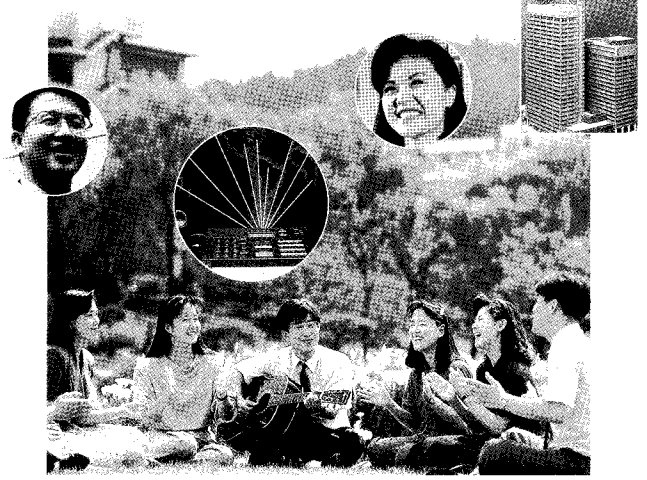
우리신문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가를 전혀 들어본적이 없는 학생이 전체의 23.1%로 나타났다.

완전히 알고 있는 학생의 수도 9.7%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전반적으로 교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가의 알고 모름이 애교심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교가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여론조사부〉

"집이라고 돌아와 보니"

POSCO 매세지 취업편



"평생직장"

매년 많은 신입사원들이 채용됩니다. 모두들 의욕과 패기로
가득차 있는 듯이 보이지만 왠지 몇몇 사원은 타회사
사원모집광고로 쏠리는 눈길이 심상치 않고, 어느 날
보따리라도 싸들고 훌쩍 떠나버릴 것 같이 불안해 보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장래에 대한 심사숙고없이 우선
입사부터 하고보자는 성급한 생각과 월급 몇 푼에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람에게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21 세기의 주역이 될 당신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목전의 이익과 안일에 사로잡힌 채 주머니엔 항상 이력서를
준비하고 다니며 신문광고나 기웃거리는 철새사원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사가 거는 당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직장선택 —
한 번 선택한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는 의지로 선택하십시오.

포항제철